東大新聞

發行編輯兼印刷人 鄭斗石
主幹 金鎭福
發行所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② 16:5 1686 6901
(週刊)
月定購讀料 貳拾원 一部定價 五원

**今週 一言**

집을 떠나 멀리 숲속으로 들어가 즐기기 어려운 孤獨을 맡본다 —法句經—

## 學生會·指導委員會
# 會則改正案一部修正코 認准
## 十個部署에 指導敎授

지난11日 代議員總會의 通過를 본 再建學生會 會則改正案은 15日 指導委員會에서 一部修正認准 되므로서 事實上 그效力을 發生하게 되었다。이 會則改正案은元來 代議員會서 各單科大學別學生會의 機能을 大幅 强化하기 위하여 獨立豫算制를 採擇하는同時 大學別로 數個部署를 두기로 成案했으나 이날 指導委員會에서는 總會長團과 分離한 單大獨立은 複雜하고現學校實情에도 不合理할뿐아니라 오히려 學生會의 機能을委縮시킬 憂慮性이 있다는 理由로 이를 修正하고 會長團만은從前과같이單一機構 밑에 各部署를 두기로 하였다。

### 理想的運營을指向 生活·學術指導委도

指導委員會 會議光景

特히 이날 會議에서는 學藝·體育等 學生會十個部署에 各各 指導敎授一名씩을 選出하는 한편 指導委員會內에 生活·學術兩特別指導分委를 새로 設置、委員을 選定하여 앞으로 再建學生會의 活動全般에걸처 철저히 감독 지도하게 되었다。

鄭總長을 비롯한 各學處長과 主任敎授全員이 參席한 이날 會議는 金尙祚學生處長 司會로 鄭總長의 人事에이어 崔載九學生主任의 經過報告가 있은후 곧 會則改正案에 對한 審議에 들어갔다。會則審議에서는 前記한 各單大學生會 獨立豫算採擇制(35條)와 任員및部署(17條、19條「나」項、6條4項)에 關係되는條項을 削除한 外에는 약간의 部分的修正을加했을뿐 原案에별 變動없이 通過시킴으로써 代議員會와 學術、財政小委員會의 三個分委를 새로두게되어 運營의 그機能이 强化되었다。또한 이審議에서는 改正會則第25條但書를「재적인원 過半數以上出席과出席人員過半數以上의贊成」으로修正하여 代議員會가成員未達로 連二回流會될경우에 議員三분의一以上參席으로 會議를成立시키려던 原案의意圖는坐折되었다。

指導委員會는 學生會를 더욱 效率的으로 指導하기 위해 各部署를 專攻別로 委員들의 責任지도케하는 한편 새로 生活·學術指導分委를 두어 現想的인 學生會運營을 펴나가고 있다。이날 選出된 各部署別 指導委員과 學術、生活兩分科委員의 名單은 다음과 같다。

▲總務部=金尙祚 ▲學藝部=李丙疇 ▲體育部=金基완 ▲辯論部=金雲泰 ▲指導訓練部=鄭瑜世 ▲UN部=金在남 ▲農村硏究部=金熙坤 ▲禪武部=洪庭植 ▲佛敎部=洪庭植 ▲女學生會=李普연

◇學術指導分科委員會 金炳奎 金奎榮 柳致眞 朴乙龍 李龍澤 李日珪 金東燮 朴奉守 楊寅祺 金在남

◇生活指導分科委員會 金尙祚 洪庭植 李丙疇 張庚鶴 申基珍 金雲泰 金鍾遠 金吉煥 金熙坤 許衛

### 26日부터受講申請 用紙交付는 25일까지

18日、敎務課에서는六二年度 二學期受講申請節次를發表했다。이發表에依하면 受講申請用紙交付는 十八日부터 二十五日까지이며 受講申請接受는 二十六日부터 十月五日까지라고한다。

이번 受講申請은 必히 主任敎授를 經由하되 規定된 學點을 超過申請할수없으며 萬若超過申請하였을境遇는 二學期學點全部를 無效로한다고한다。申請者는 格別留意를바라고있다。

### 27—29日限追加登錄

事務局은 17日 追加登錄期日을 오는 27日부터 29日까지 3日間으로決定、發表하였다。지난 登錄期間中 登錄을마치지 못한 學生들은 이번에 設定한 追加登錄期間中에 登錄을 마치지 않으면 自動的으로 除籍되며 또다시 登錄期間을 延長치않을것이라고하는데 學生들은 이點에留意하여 줄것을 바라고있다。그런데 登錄方法및納付處는 종전과같이 經理課窓口라고한다。

### 代議員總會
# 豫算凍結全面解除
## 選擧委員選出 곧學生會長選擧

【續報】12日 續開된 代議員總會에서는 再建學生會會則改正草案中 選擧施行細則을 審議通過하는 한편 凍結되었던 六二年度 六三年度 學生會豫算을 全面解除하고 再建學生會 選擧委員을 選出하였다。

이날 會議는 成員關係로 二十二名이 出席한 가운데 可否를 묻다가 一部議員의 退場後 11日에 時間關係上 審議를 보지못한 再建學生會會則中 選擧施行細則을 無修正 通過시키고 六二年度 六三年度 豫算凍結解除問題로 論難을 거듭한 끝에 前年度 還付金 十萬원을 除外하고는 全面解除하기로 하고 九時 五時 散會하였다。

또한 新代議員 選擧는 各學會單位로 九月二〇日까지 選出하여 學生課에 報告하기로 決議하고 總選擧를 爲한 選擧委員을 各單科大學別로 三名씩 選出하였다。選出된 委員中에서 議長指名에 依하여 選擧委員長을 選出하였는데 選擧日字는 會長團에서 今月中으로 定하기로 하였다。

▲選擧委員長=朴炳一(法四) ▲選擧委員=張萬守(佛二) 李錫元(化二) 姜相鎔(佛四) 閔丙哲(哲二) 鄭垈薰(林二) 李政彥(政二) 趙南天(史三) 金忠坤(經二) 林鍾茂(食二) 李根益(化二)

### 農漁村奉仕班 招請歡談會

夏季學生 農·漁村改蒙奉仕班의 훌륭한 成果를 위로하고 現地活動時에 경험한 바를 相互交換하기 위한 招請歡談會가 오는 21日(金) 下午六時부터 再建運動 서울市支部의 主催로「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다。이 모임은 農漁村啓蒙運動의 重要性을 다시한번 認識하기 위한것으로 本校學生들이 招請을 받았다。▲金來文(國三) ▲李茂雄(政三) ▲柳昇千(政四) ▲安明子(農二)

### 國軍의날行事參加 ROTC生들

오는 十月一日은「國軍의날」。창설 열네돌을 맞는 이날 기념식에는 各大學 ROTC生도 參加하게된다。本校에서도 三學年生들이 ROTC에서 參加하기위하여 맹렬히 訓練을 받고있는데 이날 ROTC生들은 분열식및시가행진도 갖게되어있다。

### 韓國銀行등서 新入行員試驗

韓國銀行에서는 新入行員試驗을 實施한다고 지난 十二日 本校에 應試者 推薦(五名)을 依賴해왔다。應試資格은 一九六二年 十二月末까지 經濟·經營·商·法·政治·行政學을 專攻한 卒業豫定者나 大學院在學生(九月卒業者)로 兵役義務를 畢한 思想이 온건하고 身體가 健康한 者라한다。希望者는 所定志願書와 履歷書、前學年成績證明書、卒業證明書、兵役畢證各一通과 사진 二枚를 二十九日限 提出하기 바라고있다。考查科目은 經濟學、法律(擇一) 또는 英語、論文、常識이라 한다。

朝興銀行서도 朝興은행新入행원試驗은 九月二十三日에 實施한다。

### 十月中旬 法學會서 模擬裁判

法政大 法學會에서는 同學會年例行事인 東國法院(假稱) 模擬裁判을 오는 十月中旬頃에 開催할 豫定이라고 한다。第九回째로 열리는 이 模擬裁判은 國立劇場(舊市公館)에서 갖게될 것이라고 한다。

### 學士考試 計劃대로 文敎部 變動없음을 闡明

18日 文敎部에서 밝힌바에 依하면 今年度 學士考試는 從時에 發表한바와 같이 敎養科目은 國家管理로 하고 專攻科目은 各學校에 委任하기로 한 당초의 計劃에 變動이 없다고한다。이는 昨年에 施行된 全面 國家管理의 不合理性을 打開하여 하는 方針이라고 하는데 아직 關係法令의 未改正으로 實施에 對한 細部節次는 決定되지 않고 있으나 늦어도 來週中으로 決定되리라한다。그런데 이번에 旅行

### 暴力行爲等 嚴禁
#### 文敎部 學生風紀指導策示達

文敎部는 11日 校內外에서의 學生風紀指導를 爲하여 各級學校에 示達을 通해 萬全을 期하기 바라고 있다。特히 文敎部는 遊園地나 遊興街에서의 學生들의 飮酒·暴力等 社會秩序를 문란시키는 一切의 事故가 發生하지 않도록 學校當局의 철저한 指導를 要望하고 있으며 또 이러한 일이 發生時는 容恕치 않을 方針이라고 한다。이번 示達된 學生風紀指導策의 重要內容을 보면 ①特別訓義을 通한 學生들의 道義心 抑揚 ②報道·刊行物을 통한 集團指導(啓蒙)를 위한 特別指導와 校內指導活動强化를 위해서 學生生活指導委員會를 學科單位로 大學單位로 設置 및 學生生活醇化를 위한 運動週間等을 設置하여 體育活動、特別活動을 장려하고 있다。한편 列車通學生들에게 通學秩序를 確立하기 위해 自治機構를 構成토록 하고 있다。그런데 本校에서는 이미 지난學期初부터 學生指導敎授制를 學年別 實施하여 큰 成果를 걷우고 있다。

### 無錢旅行者 團束하기로

한편 文敎部는 가을

### 代表팀選拔戰에 蹴球班出戰

서울市體育會 主催로 지난 19日 幕을 올린 第十四回 서울特別市體育大會 兼 第四十三回 全國體育大會 서울市代表選拔大會에 出戰한 本校蹴球팀은 그런데 本校蹴球팀의 對戰日程은 오는 23日 午前十一時부터 서울運動場蹴球場에서 慶熙大와 漢陽大의 勝利팀과 對戰하게 되었다고 한다。

### 大學院 朴性배씨 「牧牛子」研究發表

本校大學院哲學科 博士學位課程에 있는 朴性焙氏(佛大、哲學科卒)는 19日 中央公報館에서「牧牛子(普照國師)에 對한」研究發表會를 갖었다。「法施舍」의 第十三回 佛敎哲學講習會로 이날 下午六時에 열린 發表會에는 學生및 學界人士들이 多數參席하였다。牧牛子는 高麗때의 名僧 普照國師의 雅號로 이날 朴同門은 普照國師에 對한 깊은 硏究結果를 發表하여 學界의 注目을 받았다。

### 萬年筆습득코 崔英吉君寄託

17日、法政大 崔英吉(統營三)君은 34강의실에서 高級만년필 하나를 拾得코 本社에 主人을 찾아 달라고 맡겼다。잃어버린 사람은 本社에 問議 찾아가기 바라고있다。

### 『東國農林』續刊號 農大學生會서準備

「東國農林」續刊을 서둘고 있는 農林大 再建學生會에서는 原稿를 지난 17日로 마감하였다。

## 社說
### 學生指導를 어떻게 할것인가
#### —廣範한 指導要領이 要求된다—

最近 前後 二次에 걸쳐 文敎部로부터 學生生活指導에 對한 細部計劃과 社會秩序確立을 爲한 對策施行에 對한 要項이 示達된바 있다。特히 이 가운데는 學生生活指導計劃과 學生風紀指導에 關한 細部要綱이 包含되어 있었다。

學生風紀團束이나 同生活指導에 對한 對策이 세워지고 또 그實踐에 옮겨 본일도 其間에 한두번이 아니었고 同時에 相當한 成果를 거두었는데 對해서도 世人의 注目을 받은바 있다。

近者의 일은 論外로 하고라도 얼마前까지만 하드라도 相當한 敎育程度의 識者間에도 흔히「요새 學生들은 버릇이 없고 學生다운데가 없다」고 하는 慨嘆의 소리가 非一非再였다。이말은 決코 全體學生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極少數의 分別없는 學生層이나 아니면 學生을 假裝한 不良靑年때문에 듣게 되는 것이라고 보아 틀림 없을 것이다。

아무튼 그럼에도 不拘하고 學生風紀云云에 對한 警告나 非難의 소리를 자주 듣게 되는 理由는 大體 무엇일까。이點에 關하여서는 特히 뜻있는 學生間에 크게 反省되어야 할 重大問題의 하나라고 본다。反省을 通하여 얻은 結果를 놓고는 반듯이 이에 對한 對策이 나와야 될줄안다。端的으로 말해서 그 對策이란 學生自治的으로 對備策을 講究하는 길밖에 없다고 본다。이것이 이른바 再建學生會가 擔當해야 할 일이요 또 學生會의 모든 學生活動이 自治的으로 運營되어야 하는 緣由라고 보아 틀림이 없을것이다。

學問의 眞理를 探究하고 應用技術을 陶冶하고 學生다운 氣風 즉 學風이 이에 加一層 鍊磨되어야 한다는 말이다。그런데 只今까지의 再建學生會를 中心으로하는 學生自治活動은 그所期의 機能을 다 했다고 볼수있을런지 反省해 볼만한 問題이다。

그런데 이번에 文敎部로부터 示達된 內容으로서는 學生自治會의 上位에 있을만한 指導委員會 構成과 同學生生活指導에 對한 細部計劃과 同施行細則에 關한 要項들이 있었으며 따라서는 檢察聽과 協助하여 主管施行토록 하라는 要旨이었다。이와같은 要綱을 받아야만 하게되는 그 理由가 여러가지 있을터이지만 內的原因은 學生會의 自治活動이 제대로 運營되지 못하는데서 있을 것이고 外的原因으로서는 첫째 一般社會人의 社會道義心 解弛에 影響을 받고 있으며 둘째 映畵·TV等 興行과 低俗한 刊行物에 惡影響을 받고 있다하겠다。셋째 學生이 健全한 活動을 할수 있는 體育施設이 不足하고 體育에 關心이 적다는 點과 넷째 家庭의 適切한 敎養과 指導가 不足하다는데 있다고 본다。우리는 그 內的原因과 外的原因을 모두 重要視한다。

現在 本大學에는 이미 各科各學年別 指導敎授가 指定되어 있다。앞으로 指導敎授의 取扱事項과 그 職分이 무엇인가에 對하여 좀더 뚜렷한 目標와 對策이 成案되기를 바라는 바이다。끝으로 이 指導敎授制運用에 關한 우리의 所見을 몇마디 하고저 한다。

첫째로 各單科大學別 指導敎授全員으로 構成되는 全體會議에서 指導委員會의 活動事項을 決定하고 다음會議에 그結果를 報告하고 그렇게 하므로써 보다 나은 實踐目標를 세우는 것이 좋을듯하다。

둘째 各大學別指導委員會를 中心으로하여 學生特別活動및體育·文藝活動이 實施되어야 하겠다。例를 들면 各科別「세미나」를 通한 學術硏究發表를 助長하고 또 刊行物을 通한 學術發表및 文藝創作等을 助長指導하고 其他 思想醇化를 爲한 特別講義 또는 著名人士招聘講演會等도 때때로 마련되어야 하겠다。셋째로 各指導敎授는 自己들 學生들과의 接觸을 通하여 學問을 個別的으로 指導하거나 또는 問題의 相談을 通하여 學生을 把握하는데 注力함이 좋을것이라고 본다。要컨대 前近代的인 敎育方式을 止揚하고 좀더 現代化한 學生들과의 接觸을 어떠나 하는 提案일 것이다。學生들만 가지고는 버릇이 없다、實力이 없다는등 탓하기 以前에 工夫를 잘할수 있도록 環境을 造成해 주고 實力을 높여 주는 方法이 어떤것인가에 對하여 研究하고 對策을 세워서 實踐하는 일이 果然 지금처럼 要求되는 때도 없을 상 싶어서 몇마디 하여 두는 바이다。

## 菩提樹
### 般若經

古來로 大藏經을 刊行함에 있어서는 數많은 經典을 排列하는 순서에 있어 若干의 例外가 있기는 하지만 大部分 般若經을 제일 앞에 排列시키는 것으로 慣例를 삼아 왔었다。그 理由는 이 經의 本質이 般若에 있고 般若는 諸佛이 出生하는 根本이라 하여 이를 重히 여기는 意圖이었기 때문이다。

般若(반야)란 梵語 Prajna의 音寫로써 智慧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智慧라고 하드라도 普通 우리들이 말하는 經驗的 智識을 의미하는 智慧(有漏의智慧)가 아니라 聖人이 眞理를 깨다를수 있는 靈智(無漏의智慧)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區別을 두기 爲하여 智慧라고 飜譯하지 않고 그대로 般若라고 音表하고 있으며 또한 大覺하여 佛果를 얻은 것도 畢竟에는 이 般若에 依하여 이루어짐으로 般若를 佛母、또는 諸佛出生의 根本이라고도 稱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般若는 佛果의 大覺을 期하는 菩薩의 行法인 六波羅蜜中의 必須條件이기 때문에 六波羅蜜의 第一로 치고 있는 것이며、또한 六波羅蜜의 第一 단지로 치는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六波羅蜜 全部의 作用을 完全히 하여주는 根據가 되기 때문에 事實上 六波羅蜜은 般若가 있음에 依하여 能히 그 意義를 다한다고 할수가 있다고도 하겠다。

般若哲學의 鼻祖라고 불리우는 龍樹菩薩이 그의 大智度論 卷一에서『佛法의 大海는 信으로 能히 들어가고 智로 能히 건넌다』(佛法大海信爲能入 智爲能度)라고 말하였던 것은 이와같은 般若의 重要性을 端的으로 表現한 것이라 하겠다。

흔히 한마디로 般若經云云하지만 그種類는 大藏經中 部帙이 많기로 第一인 大般若波羅蜜多經을 爲始하여 第一 簡單하기로 有名한 般若波羅蜜多心經、그리고 放光般若經、小品般若波羅蜜經、仁王護國般若波羅蜜經 等等 大端히 많아서 全部를 合하면 大藏經中 經部의 約三分之一을 占할 程度인 것이다。그중에서 六百卷이란 大般若波羅蜜多經은 唐의 玄奘法師가 四年을 消費하면서 心血을 傾注하여 飜譯한 것으로써 諸部의 般若經을 全部 集大成한 것으로 가장 完全한 것이며 또한 般若波羅蜜多心經은 겨우 一枚에 不過하지만 그 小篇에 六百卷의 心髓를 要約한 것으로 예부터 宗派를 超越하여 書寫讀誦이 盛行되었던 것으로는 이에 따르는 經이 없다고 일러질 程度인 것이다。

이와같이 般若經에는 長·短 各種의 部類가 있지만 그 內容에 있어서는 어느 種類를 막론하고 般若의 思想을 說하고 있는 데에는 一致하고 있다。다시 말하면 空思想이 바로 各種般若經에 一貫하는 中心觀念이며 또한 佛敎全般에 通하는 基本的인 敎理인 것이다。

## 反射鏡

▲『敎授는 能率있게 講義를 해야 한다。읽을만한 冊을 골라 주고、補充하며 整理해 주어야 한다。』컬럼비아 大學 社會學敎授「나산·글레저」는 이렇게 말한적이 있다。그는 또한 人文·社會科學分野는 注入式敎育의 非合理性을 主張하고 止揚해야 한다고 하면서 週當一回內外의「쎄미나」制度를 권장했다。▲「쎄미나」制度는 여러가지 面에서 進步的인 敎育成果를 期待할 수 있다。첫째 學生이 同一한 「테마」를 가지고 모여 討論을 하기 때문에 時間浪費밖에 되지않던 敎室에서의 問題를 쉽사리 解得할 수 있다。그리고 둘째 自己스스로가 試圖해서 問題를 作成하고 解決할수 있는 機會이기 때문에 獨創力을 發揮、育成하는 데도 長點이 있다。▲사실 敎材나 읽고 기껏「노─트」나 하고마는式의 講義에선 이런 機會가 있을 수 없었다。注入式 講義가 전혀 필요없는 것이 아니다。유럽에서 처음 大學敎育이 시작되었을 무렵만해도 口頭講義가 認定을 받긴 했다。冊이 貴했고 知識을「글레저」의 말처럼 一種의 秘法으로 생각 했기 때문이다。그래서 學生들은 오늘의 우리들처럼 敎授들의 말을 筆記하기에 餘念이 없었다。▲오늘날 大學에서의 名講義란 技術처럼 생각되기 마저 있다。그것은 하나의 促進劑 또는 興行的인 傾向을 가지게 되면서 많은 學生들은 소위 名講義를 듣기 위하여 즐겨 모여든다。그 가운데는 講義內容보다 餘談에 재미를 부치는 傾向도 없지 않다。餘談에는 흔히 社會漫評이나、古談、傳記類에 屬하는 에피소드등이 많다。果然 이런 餘談이 얼마만큼 敎育的 效果를 주는 것일까。그러나 話題에 궁한 사람들에게는 興味있는 것도 없다。그리고 學生들의 集中力을 위해서도 餘談은 講義技術에 屬하는 듯 하다。▲우리들은 高名하다는 名講義를 많이 들어왔다。그러나 그 內容들이 얼마나 無體系하고 우리들을 空虛하게 했던가를 안다。學問을 授受하는 講義室에서 空虛를 느낀데서야 말이 되겠는가。좀더 新鮮한 內容과 親切한 方法은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더욱이 人文·社會科學分野에서 말이다。


# 一潮閣發行 大学敎材 및 参考書

圖書出版 一潮閣 ① 電話 ③ 5431·8270番 振替 서울1193番

(西紀1962年 8月末 現在) 〈★는 1962年度 新刊〉

**法學**
- 憲法解義 — 高大總長 俞鎭午 著 — 菊判 350面 값 170원
- 憲法講義(上) — 高大總長 俞鎭午 著 — 菊判 130面 값 80원
- 憲法의 基礎理論(憲政硏究第一集) — 高大總長 俞鎭午 著 — 菊判 240面 값 65원
- 憲政의 理念과 實際(憲政硏究第二集) — 高大總長 俞鎭午 著 — 菊判 240面 값 65원
- 美國憲法論 — 釜山大敎授 文鴻柱 著 — 菊判 468面 값 180원
- 國際法 — 高大敎授 朴在灄 著 — 菊判 540面 값 250원
- 國際法原理 — Hans Kelsen 著 延世大敎授 徐碩淳 譯 — 菊判 394面 값 140원
- 刑法講義(總論) — 前高大敎授 李建鎬 著 — 菊判 298面 값 180원
- 刑事政策 — 서울地法少年部支院長 權純永 著 — 菊判 442面 값 280원
- 法哲學原論 — F. Harms 著 高大敎授 車洛勳 譯 — 4·6判 170面 값 20원
- 行政法講義(全) — 高大敎授 尹世昌 著 — 菊判 446面 값 220원
- ★改訂 行政法各論 — 高大敎授 尹世昌 著 — 菊判 460面 값 300원
- 法과 自由 — 알프렐·덴닝 著 高大敎授 尹世昌 譯 — 菊判 156面 값 100원
- 로오마法原論 — 高大敎授 玄勝鍾 著 — 菊判 338面 값 200원
- 마르크스主義法理論 — Hans Kelsen 著 東大敎授 張庚鶴 譯 — 菊判 292面 값 120원
- 民法案意見書 — 民事法研究會 編 — 菊判 310面 값 120원
- 註解 新民法 — 最高會議法司委專門委員 李泰俊·劉敏相 編著 — 菊判 414面 값 190원
- 新民法債權總論 — 梨花女大敎授 金顯泰 著 — 菊判 264面 값 130원
- 新民法債權各論 — 梨花女大敎授 金顯泰 著 — 菊判 256面 값 130원
- 演習新民法債權編 — 梨花女大敎授 金顯泰 編 — 菊判 362面 값 180원
- 演習新民法總則編 — 梨花女大敎授 金顯泰 編 — 菊判 232面 값 150원
- 民法敎室(上) — 梨花女大敎授 金顯泰 編 — 菊判 318面 값 220원
- 新商法概論(上)(總則·商行爲法·會社法) — 高大敎授 車洛勳 著 — 菊判 374面 값 250원
- 新商法概論(下)(手形法·小切手法·海上法·保險法) — 高大敎授 車洛勳 著 — 菊判 440面 값 270원

**政治學**
- 政治와 政治思想 — 서울大文理大敎授 李用熙 著 — 菊判 390面 값 190원
- 東西政治思想史 — 高大敎授 金永斗 著 — 菊判 412面 값 200원
- 政治學原論 — 中大敎授 白尙健 著 — 菊判 348面 값 220원
- 近代外交史 — 建國大敎授 申基碩 著 — 菊判 376面 값 220원
- ★行政學 — 高大敎授 李文永 著 — 菊判 470面 값 320원
- 體系的政治學 — C. E. Merriam 著 東大敎授 金雲泰 慶熙大敎授 李宇鉉 共譯 — 菊判 580面 값 250원
- 英國憲政史 — S. B. Chrimes 著 國民大敎授 李世求 譯 — 菊判 270面 값 150원
- 美國政治의 將來 — S. Lubell 著 高大敎授 吳炳憲 譯 — 菊判 252面 값 140원
- 政治動態의 分析 — H. D. Laswell 著 延世大敎授 李克燦 譯 — 菊判 206面 값 130원
- 政治行態의 基礎理論 — D. Waldo 外 六人 著 尹天柱·禹炳奎·李廷植 編譯 — 菊判 330面 값 200원
- 行政學原論 — D. Waldo 著 行政大學院敎授 徐鳳燦 成大敎授 李載錫 共譯 — 菊判 218面 값 150원
- 選擧論 — W. J. M. Mackenzie 著 成大敎授 李京求 譯 — 菊判 270面 값 170원
- 選擧制度 — 前國會圖書館長 申鉉經 著 — 菊判 424面 값 270원
- ★人事管理論 — Paul Pigors·Charles A. Myers 共著 金雲泰·朴商烈·車一錫 共譯 — 菊判 410面 값 280원

**經濟學**
- 新版 經濟原論 — 洪又 著 — 菊判 354面 값 220원
- 經濟敎室 — 洪又 著 — 菊判 432面 값 220원
- 現代經濟原論 — 洪又 著 — 菊判 360面 값 220원
- 貨幣金融論 — 洪又 著 — 菊判 302面 값 180원
- 後進國經濟理論 — 洪又 著 — 菊判 346面 값 250원
- 現代經濟學原理 — 李基俊 著 — 菊判 416面 값 280원
- ★韓國經濟의 構造와 循環 — 高大敎授 李昌烈 著 — 菊判 426面 값 280원
- 經濟政策 — 서울商大敎授 洪性囿 著 — 菊判 352面 값 200원
- 近代經濟學史 — 서울商大敎授 洪性囿 著 — 菊判 274面 값 170원
- 農業經濟學 — 中大經商大學長 朴根昌 著 — 菊判 276面 값 170원
- 經濟地理 — 서울商大敎授 朴東昂 著 — 菊判 220面 값 120원
- 經濟數學 — 서울商大敎授 邊衡尹 著 — 菊判 268面 값 150원
- 經濟數學入門 — 켈하드·틴트너 著 서울大農大敎授 金文植·嚴廷振 共譯 — 菊判 328面 값 220원
- 財政學槪論 — 李海東 著 — 菊判 382面 값 220원
- 統計學 — 서울商大敎授 李海東·邊衡尹 共著 — 菊判 398面 값 300원
- 國民所得論 — 建大敎授 全哲 著 — 菊判 250面 값 160원
- 韓國農村團體史 — 文定昌 著 — 菊判 382面 값 250원
- 奴隸에의 길 —社會主義와 自由— — F. A. Hayek 著 農協中央會長 李廷煥 譯 — 菊判 234面 값 150원
- 社會政策(各論) — 前서울大商大敎授 禹基度 著 — 菊判 300面 값 200원
- 케인즈經濟理論의 一般化 — Joan Violet Robinson 著 高大商經大學長 趙璣濬 譯 — 菊判 180面 값 120원
- 價格伸縮性과 雇傭 — Oscar Lange 著 農協中央會長 李廷煥 譯 — 菊判 180面 값 100원
- 動態經濟學序說 — R. F. Harrod 著 農協中央會長 李廷煥 譯 — 菊判 190面 값 100원
- 需要理論 — J. R. Hicks 著 李基俊 譯 — 菊判 266面 값 160원
- 經濟成長의 모델 — Sir. R. Harrod·E. D. Domar·N. Kaldor·J. R. Hicks 著 李廷煥·李基俊 共譯 — 菊判 180面 값 100원
- 景氣循環論 — J. R. Hicks 著 李海東·李基俊 共譯 — 菊判 246面 값 150원

總販 一文社 電話 ③ 5859番 振替 서울1425番

# 官僚와 學問 (上)

韓 相 範

李朝兩班統治體制下에서 兩班의 一生의 最大目標는 高級官僚가 되는 것이었다。이官僚의 地位는 富貴와 權勢를 約束하였다。그런데 이 官僚의 地位에도 進出하는 길은科擧에 及第하는 것이었으므로 兩班子弟의 課業은 科擧=試驗을보기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었다。이러한 條件下에서는「官學」이 發展할것은 當然하다。勿論 이「官學」은 兩班階級의 獨占物이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資産과 餘暇가 保障되는環境下에서만 官學을 習得할수 있고 또 身分 如何에 따라서 試驗에 응할수 있는資格이 制限 되었으므로 下層身分出身의 子弟에게는 官僚로서「出世」한다는 것은거의 不可能하였다。

## 官尊民卑는 後進性의 反映

### ― 學問의自由로운 發展이없는곳에 御用만 强要 ―

## 官僚의偏見이學問의發展을阻止

李朝 兩班貴族 或에는 몰락되는兩班은 下流兩班階級의 出身者가 惡條件을 克服하고 試驗에 及第하므로써 富貴와 權勢를 얻는 成功談이 로만틱하게 묘사되고 있으며 이러한 成功談은 아직까지도 우리 社會에서는 美談으로 通하기도한다。

近代社會에서 封建體制에 適應하든「立身出世主義」(?)가 額面그대로 通할수있는 것은 못되지만 長期間의 前近的 傳統과 植民地的 잔재로 因하여 高級官僚의 隊伍에 드는것은「出世」(?)를 意味하고 實은 그것이 富와 權勢를 約束하기도 하였다。官僚가 되려는 欲望에 그치지 않고 官僚가 되는 것을 大端한(?)社會的 出世와 成功으로 錯覺하여 官尊民卑的 妄動을 生活化하는 俗物的인 前近代的 惡習이 造成되고 있는것은 우리社會의 後進性의 反映이기도하다。

더욱이 問題되는것은 特異한 才能이나 또 條件이 없이 收入과 社會的 地位를 保障받는 길이 試驗의 合格에있고 또 現實의 生存競爭이 極甚에 達하고있는 社會에서 試驗을위한 學問에도 또 모든것을 集中시키고 試驗의 評價基準이 試驗의 合格率에 있게된다는 것은 不可避한 일이기도 할것이다。이러한 傾向은 近代化가 徹底히 진행되지 못한 落後한 社會에는 더욱 심하다。

後進社會에서는 高等教育받은 者가 小數이고 이들은 인테리가 活動할만한 舞臺란 極히 狹小하다。産業界에서 自己의 才能을 發揮하기도 마땅치 못하고 그렇다고 傳統을 無視하고 대담히 肉體的인 勞動을 하기도 꺼린다。그러니 收入과 社會的 地位(?)를 確保하고자 하는 傾向이 많다。

特히 後進國家는 近……

## 漢字문제

梁 柱 東

## 기엘케골과 孤獨의 世界

### 孤獨에의 招待

鄭 一 璇

세계도 하나요 삶도 하나요나도 하나다。하나 아닌것이 없구나, 있다는건 곧 하나를 의미하는것이 아닌가。하나만이 존재하는 것。하나 外엔 아무것도없는것。 우리는 이상하게도 이러한 하나에의 自覺속에서 도리어 용기와 기쁨을 찾아낸다。다름아닌 하나에의 철저한 의식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때문이다。存在란 곧 하나를 의미한다고 하는 경우의그하나란 필경 나 자신인 것이다。

## 藝術은 孤獨의 自己昇華

### 自身을 問題삼은 最初의 哲學者

### 孤獨을이기는者만이人生의勝利者

## 時事解說

## 17次 UN總會18日 開幕

### 統韓問題는 25番째 議題로上程

### 空前의 波瀾과 危機造成

(一九六二、九、十七 金鎭福解說)

## 東大案內

### 訂正公告

東大新聞 二〇三號二面「찾아간 孤獨의 집」中「베인者」는「베인者」의 誤植임을 訂正함

### 拾得物

▲文理大 物四年 李榮益 ▲佛大 佛一年 高遠實

폐스포드를 本社에서 保管中

### 紛失廣告

### 갈밭회임시총회

教授 學生諸位께 紳士服과 校服을 특별봉사합니다

평 양 라 사

但, 校服上下주문시는 優待券을 지참하시면 특별 푸레센트합니다

優待券 東大

園成社와 빠고다公園中間 ㉣3021·3529

本報廣告 申請은 (2)1685 -7.690 .8611 -2로

銀石計 金寶時 寶時藏 TEL ㉣ 一四二一 代表 朴 海 鎔 位置 鍾路一街西側 電車停留場앞

東大教授 徐廷甲著 新會社法 日新社刊 定價390원 250面

## 原稿募集

이번 英語英文學會에서는 學會誌「아폴로」第二輯을 發刊코저 다음과 같이 會員들의 原稿를 募集하오니 많은 投稿있기를 바랍니다。

記

種目=詩、隨筆、創作文、批評、硏究論 枚數=詩는一人當 三篇以內、隨筆은 二十枚以內、批評、硏究論文은 五十枚內外 期間=九月末日까지 提出處=英語英文學會室 英語英文學會長 白

# 竹田吉文博士 招請懇談會要旨

—竹田吉文博士가말하는—

## 日本의山岳活動

가을—。선선한 바람이 산마루를 휘감아오는 季節이오면, 「캠퍼스」안의 「알피니스트」들은 가슴을 설레이기시작한다。비지땀을 흘려야하는 무더운 여름철, 아니면 손발을 에일듯한 엄동설한에나 山을 오르내릴수 있는 우리네 「알피니스트」들의 형편으로는가을은 정말 가슴만 설레어 놓는 季節이 되고 만다。山에오르면, 아아 그 山頂에 발을 딛고 서면, 우리들의 꿈은, 우리들의 希望은 얼마나 벅차고 넓어질 것이냐! 「山으로! 山으로!」 젊은 情熱들이 줄달음치는 「알피니스트」의 季節。때마침來韓한 日本의山岳會理事長竹田吉文氏를 本校 山岳班員들이 十一日에 招請하여 登攀活動에對한이야기를 나누었다。다음은 日本의 登攀活動에 關한 竹田吉文博士의 얘기를 記者가 간추린 것이다。【編輯子】

【本校山岳班員과 竹田吉文博士와의 座談會】

### 海外遠征엔外貨와食糧難

‖南美「안데스」山 遠征時엔 五年間이나 準備‖

### 東大山岳班 日本오도록

本人은 日語로 人事를 드리려 합니다。事實 韓國語로 人事드리는 것이 마땅할줄 아나 韓國語를 모르기 때문에 日語를 쓰게 됨을 널리 理解해 주시면 感謝하겠읍니다。

日本人의 祖上이 韓國사람이었다고 하며 日本글도 韓國글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각 합니다。말과 글이 서로 달라도 日本과 韓國은 兄弟처럼 通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東大山岳班에서 本人을 招請하여 준데 對하여 무어라 感謝의 말씀을 올려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日本大學生의 山岳活動**

지금 日本의 學制가 六、三、三、四의 美國式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또한 出席이 엄격하여 從前의 學生들보다 山에 오르기가 무척 힘듭니다。

日本大學生의 山岳活動이나 韓國大學生의 山岳活動이나 아마 꼭같을 것입니다。日本 三地方 같은 곳은 三十세트정도의 費用이면 갔다올수 있읍니다。

그러나 週末을 利用해서 登山하기란 참 곤란합니다 交通費가 비싸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다수의 大學生들은 學期들 利用해서 봄、여름、겨울、가을의 네번을 合宿으로 가고 있읍니다。

한번 合宿하는데 最低 十五弗의 經費가 들기때문에 알바이트를 한다던지、저축을 해서 경비를 충당해 나가고 있는 實情 입니다。

**海外遠征**

日本에서도 海外遠征은 매혹적인 대상입니다。어려운 條件들 때문에 마치 복 제비를 뽑는것과 같다고나 할까요。

海外遠征에 있어서 가장 큰 問題는 外貨입니다。外貨交換이 日本에서 얼마나 어렵다는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리라 믿읍니다。「하네다」空港에서 飛行機에 올랐을때 비로소 마음을 놓을程度니까요。遠征에있어 先行되어야 할것은 치밀한 計劃입니다。그리고 군센 信念이重要합니다。山을 오르는데는 山의 높이에따라 돈이 많이들기때문에 八千미터 程度면 萬弗이 듭니다。南美「안데스」山으로 遠征을 떠났을때는 五年이란 準備期間이 必要했읍니다。우선 스페인語부터 배우고、그地方의風習、讀圖法等을익힌後 장도에 올랐읍니다。이런 準備가 다된 다음 일단 떠나면、팀・워ㄱ과기후가 모든걸 좌우합니다。이런 條件만 갖춘다면 아마 地球에서 못오를 山은 없을 것입니다。

인도의「칼컷타」나 페루 같은 데서는 入國이 어찌 어려웠던지 혼이 났읍니다。海外遠征에 있어서 東洋人의 가장 큰 苦痛은 음식입니다。쌀을 먹어야되는데、그 무게가 무거워 登攀에 큰 지장을 招來합니다。앞으로는 食糧의 改良이 있어야될 것입니다。높은 山을오르는데는 쉬운 코스를 擇한다는것이 重要합니다。外國의 높은 山은 바위 뿐 아니라 氷河가 있어「안・자이렌」을 해서 오르지 않으면 안됩니다。「쟈일」을 깨끗이 다룬다는 것이 제일 重한 技術입니다。겨울 山 登攀때에는「아이젠」을 신고 올라야 합니다。바위 틈에 얼음이 박혔다던지、눈이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日本 體育部分 山岳界의 範圍**

大韓民國이나 그事情이 비슷합니다。日本에는 體育部分이 四十餘種이 되기 때문에 水泳、바스켙、볼等 그運動에 따라 各 大學에서는 主運動으로 두고 있읍니다。山岳이 차지하는 範圍는 극히 적어 日貨로 二十萬원程度의 豫算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氷壁登攀**

韓國과 마찬가지로 氷壁이 없어 氷壁登攀은 힘듭니다。雪界(바위와 바위 사이에 낀 눈)는 눈이 많이 올때는 못 붙고 여름(七、八月)雪界登攀을 適해 氷壁登攀연습을 하고 있읍니다。

日本의 氷幅은 물려서 연습이 不可能합니다。

**登山食糧**

「알파・밀」을 食糧으로 쓰입니다。물론 「알파・밀」은 七千미터 以下의 登攀에 使用하지만、더 高度로 오르면 가루 음식을 먹습니다。

이 가루 음식은 따로 市場에서 登山客을 爲하여 팔기 때문에 한결 便利하죠。이 가루 음식은、카로리에 따라 적당히 배합이 되어있어서 몇달후 山에서 돌아오면 대개 살이 쪄 있읍니다。방수、방습이 되어 포장까지 完全하므로 登攀에는 가장 便利합니다。

遠征隊는 組를 짜서 이 登山食糧을 區分하고、山의 높이에 따라 다시 細分하여 지고 올라 갑니다。

**東大山岳班의 日本遠征問題**

우선 바라는 것은 韓日會談이 好轉되는 것 뿐입니다。明年 夏期放學까지는 기필코 여러분들이 日本을 올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내가 알기로 韓日會談은 곧 好轉되리라 민읍니다。

韓國은 山이 적읍니다。히말라야도 좋지만 日本에 와서 히말라야 程度의 습도에 있는 日本 山들을 정복해 봄으로써 그 技術연마에 注力해 봄이 좋을 것입니다。

**本校와 日本大學의 結緣問題**

日本에서도「와세다」大學等에서 韓國大學과의 交換을 希望있고있읍니다。이런 問題는 爲政當局과、기타 要路에 얘기하여 成立되도록 努力해 보겠읍니다。二十二日까지가 체재期間인데 더오래 머물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여러問題를 두루 조사해 보겠으며 山岳技術에 對한 講演會도 가질예정입니다。本國에 돌아가서도 東大山岳班은 잊지않겠읍니다。【文責在記者】

---

# 習作期의 所産

—「공트」「妖物」과「微笑」를 읽고—

元容璇

## 『女子』를 向한 억지욕설……「妖物」

## 「微笑」……솜씨좋으나서투른表現力

---

世界의 大學街

# 테헤란大學의 流血騷動

「이란」의無名大學生寄稿

## 發端은 師大生의 手當支給要求

## 600名負傷 300名은 監獄에

## 總長은追放되고教授는거의辭任

【聲明書를 發表하는 테헤란學生들】

---

최초山岳會는英國「앨파인・크럽」

# 登山은 精神 단련에

끝없는 鬪爭과 忍耐力있어야

**登山의 意義**

地上에 초연히 솟아있는 山을 征服하는 것처럼 壯快한 것은 없다。그래서 元來 登山의 묘미도 여기에 있었던 것이 높은 山을 오르려고 하는 山과의 鬪爭을 通하여 우리의 불요불굴의 정신을 단련시켜준다。그리고 思索의 世界는 넓혀진다。

**技術과 山岳病**

**山岳會**

---

現代知性人들

▽W・H・오던△

Wystan Hugh Auden (1907~)

# 宗教的實存主義的傾向

「프로이드」에서 키엘케골的不安

▲重要作品 Poems (1930), The Orators (1932), Look, Stranger (1936) New Year Letter (1941) Age of Anxiety (1946) 詩劇「개의 가죽을 쓴 사나이」等

---


# 時事英語研究

10月特大號 (通卷42號) 값 50 원

發行 時事英語社
總販 長安書林

(本誌二大放送講座)

◎ 學士英語 四週間 (學士考試對備講座)
講師一文昌淳 先生 (時事英語學院長)

◎ AFKN 聽取入門 (美軍放送듣는要領)
講師一羅建碩 先生 (延世大 講師)

HLKY 放送網을 통하여
서울 밤 11:00—11:15 地方 밤 10:30—10:45

(特輯) 學士考試 및 就職試驗 (特輯)

★ 學士考試 英語를 말한다; 座談——李惠淑先生, 李德姬孃, 徐孝淑孃
★ 學士英語 準備는 이렇게 하자……………………延世大 敎授 全 炯 國
★ 學士英語 問題를 檢討한다——「學士英語四週間」을 中心으로
外大敎授 金 碩 柱・中大敎授 崔 昌 鎬・釜山大敎授 具 中 會・高大敎授 朴 肯 洙
★ 職場生活과 英語——Enquête
京鄕新聞編輯局長 金 光 涉 石炭公社總務部長 吳 潤 善
內閣事務處次長 朴 榮 錫 韓國銀行理事 鄭 元 勳
★ 1961—62年度 主要 各機關의 新規職員 採用現況 및 1963年度의 展望
★ 學士考試 및 就職試驗 模擬問題集
出題者: 서울大敎授 李 鍾 求 東大敎授 李 根 三 淑大敎授 李 章 煥
★ 就職試驗에 많이 나오는 用語解說
★ 重要 時事 및 實用略語 300集 ★ 國內 各機關 英語名稱 一覽
★ 各機關 職員 新規採用試驗 英語問題 및 解說
中學校敎員 資格考試 經濟企劃院 調達廳
海外留學 資格考試 韓國電力會社 榮喜油脂會社

■ The Government for Labour?
1964년에 실시될 總選擧에서 다시 執權의 好機를 얻고 있는 英國 勞動黨의 政策과 進路에 대한 London 大學 敎授 McKenzie와 勞動黨 所屬 下院議員 Crossman과의 公開討論
■ Independence Day Memorial Speech
7月 4日 獨立記念日을 맞아 Philadelphia의 獨立館에서 행한 美大統領 Kennedy의 演說全文
■ Khrushchev's Crown Princes
Khrushchev의 後繼者가 되려고 조련 政治家들이 Kremlin 깊숙이서 벌리고 있는 暗鬪는?
■ How To Lie To Women
女子를 다루는 法은 속는 줄 알면서 속아 넘어가게 하는데 있다. 어떤 方法이 필요한가?
■ The Girl Friend (英小說 對譯・師大敎授 張旺祿)
■ Dialogue Script研究
The Roman Spring of Mrs. Stone (로마의 哀愁)

姉妹誌 "英語生活" 9月末 發賣豫定
새로운 企劃과 編輯으로 엮어져 여러분 앞에 淸純한 모습을 보일 "英語生活"을 期待하시요.

學士考試 準備는 四週間으로

(三版) 學士英語 四週間 값 130 원
出題敎授 高玉南 金周賢 루코푸 全炯國 李鳳國 金碩柱 李碩崑 羅英均 宋顯燮 金勝洼 崔昌鎬 郭昌顯 李周垣 朱耀燮 趙成植 康鳳植 朴肯洙 張相瑚 吳碩奎 李浩成 具中會 全濟玉 鄭炳祖 韓喬石

(三版) 文化史 四週間 값 130 원
出題敎授 趙義卨 鄭在覺 曺佐鎬 殷永植 金成植 金河龜 洪以燮 鄭雲龍 李海南 李敏鎬 辛寧滿

THE CURRENT ENGLISH LIBRARY

Scholarship을 얻는 길
再版 「時事英語研究」編輯部 編
누구나 要領을 터득하고 秘訣을 알면 海外留學을 scholarship을 얻어서 갈 수 있다. 이 海外留學 Handbook을 보시라.
4・6版 模造洋裝 270面 값 150원

AFKN 聽取入門 三版
10餘年의 英語공부에 英語放送하나 제대로 못듣는 서글픈 韓國의 現象——이 册 한권이 여러분의 英語에 대한 귀를 열어주고 혀를 부드럽게 해줄 것이다.
4・6版 模造洋裝 250面 값 150원

## 學生隨筆리레ー

# 슬픈 幸福을 위하여

朴進昊

戀人이어 나의 사랑을 받던 愛人이어 당신의 誤解는 참으로 아름답고 貴한 것이였읍니다。 는 언젠가 나부터 그런 結論을 내렸읍니다。

당신을 당신이 마음의 모두를 빼앗긴 그날로 하여 나는 實로 새로운 인간형의 나를 모색하기에 분망하였읍니다。

폭풍우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고난이라고 극복할 수 있는 意志의 손과 굽히지 않는 忍耐로 意識의 소용돌이속에서 나를 미치게 하는 당신을 향하여 쉬임없이 다가 가고 있읍니다。

당신의 어처구니 없는 오해로 하여 당신의 사랑을 거부당한 그날로부터 나는 모든 象徵의 조각을 꽃밭속에서 石手처럼 거룩하게 조각하였읍니다。 당신의 길을 위대한 상을 조각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었읍니다。

고 지루한 四年을 바쳤읍니다。 그리고 나의 戀人이여 당신에게 바쳐진 象徵의 꽃밭을 확고하게 하는 詩의 存在는 나의 愛人이여 당신의 象徵의 꽃밭을 가꾸는 一部를 이루고 있는 彼岸은 가슴의 저 무르익은 忍耐의 손의 나의 向하여 뜬 눈을 階段을 그토록 두려운 門 이루고 있는 불빛이 비쳐 오는 당신의 방문을 지금도 가까이 나를 세워 주는 누구의 미움을 저 보다도 있을 무서운 눈빛을 하고 生覺하면서 불러 보는 아름다운 詩心을 生覺하면서 당신의 길을 모든 초상을 조각하는 당신의 가지가지의 초상을 四年도 하루 같은 기쁨이 언제나 있었읍니다。 그래서 感激이 나는 날까지 목숨이 다하는 부지런히 이런 感作을 하여 業을 하였읍니다。

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무서운 당신의 조용한 속에서 나의 하루 맞고 싶읍니다。 빛을 어깨 너머 당신의 音聲을 들고 싶은 오늘 識의 땅에 손을 잡고 싶은 절실히 당신의 얼굴을 입니다。 당신의 검은 머리 칼로 나를 그 미치게 한 校庭의 푸른 벤취 …

지금 쯤은 기쁜 소식을 전하여 줄것도 같읍니다。 현실의 일깨워준 불빛속에서 年도 하루 같았읍니다。 꽃을 피우기에 아름다운 골목에 四 당신 넓던 거리。 밤 자국을 새기고 골목 實과 고독을 對決하면서 無數한 장을 풀렸읍니다。 激을、쌓이고 쌓인 긴

를。환희의 그날의 당신과 나의 대화를 생각하면서 時間들을 풀어 버리렵니다。 나는 외로웠읍니다。 나의 全部를 사랑을 위하여 빼앗겨버린 나는 외로워야 했읍니다。 그러나 나의 意志는 한번도 굽히지 않은 모든 것을 이겨나갔읍니다。

음이 많은 거리에서 겸은 커텐이 느리운 쓸쓸한 音樂室 구석에서 쓸쓸한 고적한 나의 방에서。 당신을 맨처음 보았을 때의 설레임과 환희를 그때의 感激과 充滿을 想像하면서 나의 姿勢를 언제나 向한 절실하기만 하였읍니다。 언젠가 당신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하였지요。

내가 당신에게 向한 愛情은 당신에게 쓰는 時間밖에 없다고、나에게서 時間은 眞實을 찾을수 있는 때뿐이라고。 이것이 현명한 누구보다도 賢明한 당신의 神의 판단일까요、아니면 정말 명령일까요。 나는 당신의 話중에서 이런 말이 對의 귀를 때려 줄때나 나는 그 명령을 저주했읍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모하는 나를 무척 주저했읍니다。 나는 당신을 한번도 본적은 없읍니다。 눈으로 본 당신의 視野는 어떻게 내가 비쳐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의 눈빛으로 알수가 있었읍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四年을 당신을 기다리던 세월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잃어버린 나의 愛人이어 戀人이어 우리는 지성이 라고 자부하는 그 慾望을 위하여 여기까지 쌓이고 쌓인 장벽을 풀어버리고 슬픈 오해를 나에게로 오십시오。 나의 집 제나 오십시오。 지금 언 玄關의 불빛은 당신을 라도 찾아올 熱望하면서 있읍니다。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당신을 당신과 나의 오늘을 領域을 갈망하면서 보내고 있읍니다。 아름다운 초상을 조각하면서 나의 내일을 일의 나를 점지하고 있 읍니다。 굳게 닫힌 나의 門을 다시 노ー크하여 주 길을 바라면서 오늘을 보 내고 있읍니다。 (國文科)

# 거울

……金時泰

누굴까 저기 나를 훔치고 있다。
明暗의 아가리를 여벌리면서、
우리들속에 보듬고 있는
보아라、젯빛 죽음의 그림자처럼
밖으로 하나하나 훔쳐나간다。
오만가지 빛으로 갈아 입히고……
나는 內部에
몇 천개나 壁과 房들이 두루고 있어
나는 또 몇 천개나
모여사는 것일까
나는 또 몇 천개나
심질 돋구고
나는 또 몇 천개나
變裝의 나를 쫓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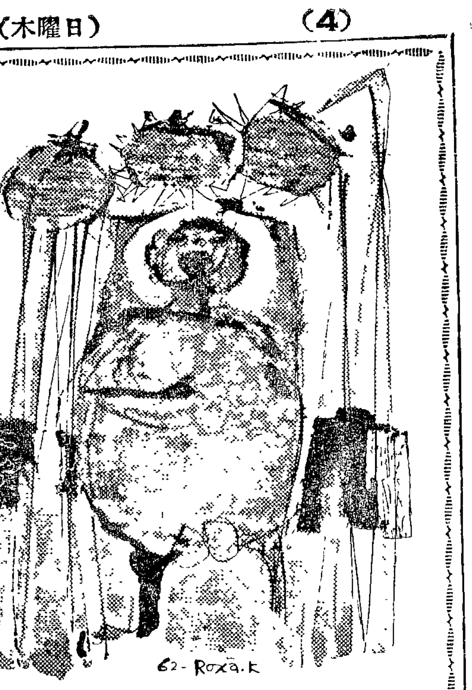
내가
나를 빌어서 닮아가면서

(저걸 봐…)
(저거、말짱하니 나를입고들 오는거)
손을 쥐볼까
역시 손을 주고 있다
이놈! 눈깔을 뒤집어 보면
역시 따라 뒤집으며 노리고 있다。
우리는
마주 서서 他人과같이

아니、화가 치밀어 달려가봐야
달려가 봐야
누굴까 우릴 서로 바짝 죄울 뿐。
나를 거기 불러라 불러 들여서
자네 한번 손목이나 불쑥 내봐라
(허다 못해 홀려서달아나 볼까)
도리어 더우 안 가슴에 잡아나꾸곤
그만 그만 無明속에
삼켜 먹을까

누굴까
저기、나를
훔쳐가버린것
이다。(國文科)

# 가을片想



<컬・해바라기와少女>

라이나 마리아 릴케의 가을 詩에 이러한 귀절이 있지않소? 상기 집을 마련하지 못한것은 이미 집을 이룩하지 못하오리다。 지금 고독한 사람은 긴 겨울의 고독안에 살게 되오리다。

偉大했던 여름、盛夏의 불붙듯한 情熱도 무성한 신록도、그리고 발랄한 太陽의 모습까지도 이렇게 그 年처럼 Monsoon地帶의 가을 展例 望을 爲해 徐徐히 Fade-out의 영상처럼 우리에게 살아져가는

서 멀어져가오。날로 짙어지는 立秋節의 물감들이 농도를 짙으게 하고 있오。머지않아 觀岳의 짙은 단풍(丹楓)이나 의 窓을 물들일 것이고、落葉하는 街路樹 밑으로 술한 생각의 마음들이 서성거릴、그러한 심오한 優愁속에서 自己들과 함께 해학(海虐)한 苦痛을 맛보는 哲學의 季節이 溶明되는 것인가 보오。허젓하고、마냥 채울 수 없이 허젓하기만한 우리들의、마음을、마치 잃은者의 울분같은 텅빈 마음들을、가을은 너무나 가혹한 憂愁의 바늘바람으로 우리들을 괴롭힐것만 같소。

나의 가을은 두려운 季節인가 보오、마치 열살좀 손위의 슬픈 女人과 아낌없는 사랑을 이 익어가는것 같은 그러한 季節이오、스님이 옛 愛女를 만남하는 것 같은 나의 迎秋感傷은 왜 일까요。

노을이 삭으면、어둠이 오면 大地에는 소슬한 바람이 일고 가을벌레의 노래들로、조용히 振動된 달빛의 소리로 귓전을 달래주는、깊으면 깊을수록 이외로워만지는 그러한 가을밤을 가지오。

가을은 수험의 계절이라고들 합니다。심은 자에게는 거두어 드릴것이 있으되 그렇지 못한 이는 서러웁고 두려워지는 것은 역시 가을이 가진 憂愁의 한토막 일게요。人間은 수회의 결말 보다 꿈이 옴트는 파종을 훨씬 더 좋아하고 있잖소。새싹이 움트고 萬像이 소생하는 봄보다 人間은 하나의 年輪만을 바치고 지난날을 잊으려고 안으로 안으로 마음을 접어 들이는 가을을 훨씬 서러워 하고 괴로워 하는것이오。

이렇게 人間들은 오히려 滿熱된 회열보다「創造의 苦痛」을 더 사랑하고 있잖소。年年이 찾아오는 無常哲學 강습회의 季節인가요。한낱 나의 한해도 가고말것이면 最少限 나의 수확을 確保해야 하겠소。그것은 나의 領域이되고 서글픈 마음의 空白에다 반드시 채우고 싶은 나의 糧食이되오。가을에 나는 내 꿈의 둥우리를 지어야 하오。온 겨울의 서러움을 爲해 포스근한 내 마음의 집을 마련할까요? 가을에 나는 안도 고독하고 싶소。초조도 불안도 없이、그리고 그토록 끝없이긴 기인 겨울의 밤을 고독 안에 서 살아야 겠오이다。모란이 피일 그 어느새벽의 화려한 時間을 爲하여 끝내 그 호젓한 創造의 苦痛만을 사랑하겠소。 긴 겨울의 고독안에서라두。

韓 頀 (經濟科)

# 用水資源을 通한 經濟問題

下……鄭原寧

## 七、洪水調節

韓國에 있어서 洪水는 河川上流部에서 水源地帶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年雨量의 二分의 一以上이 七月과 八月에 集中하여 降下하므로써 洪水는 急激하게 내습하여 오랜동안 국농민의 精力과 技巧한에 도전해 왔다。肥沃한 河川에 沿한 洪水平野를 따라서 堤防을 축조하여 홍수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土地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過去 막대한 資金과 努力이 消費되었다。現在 目前의 순천水災는 다시 복구하기 위한 資金이 무려 三억以上에 達한다 하나 이에 더 무서운 일이 있겠는가 말이다。韓國에서 洪水調節을 위한 手段으로써 主로 堤防축조를 채택한 이유는 以上의 순천수재의 動機에서도 볼수있겠기 때문이다。따라서 堤防은 흙 모래 岩石等 그地方에서 生產되는 材料를 사용하여 많은 勞動力을 消化할수 있는 手工業方法도 될수가 있는것이다。

## 八、水力發展

韓國의 河川은 거이 모두가 그 流域이 狹少하여 流量은 大量의 降雨이나 均一한 降雨에 依해서 流出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流出의 模樣相이 不均一하므로 水力發電開發을 위해서 唯一無二하고 重要한 開發豫定地點을 얻기가 힘들지 않는가 본다。그러나 어떤 河川에서는 長期에 걸쳐서 相互調整下에 開發이 이루어질수 있다면 上流部의 한 豫定地點에서 發展이 끝나 放水된 물이 下流部의 여러 地點에 이익을 주는 그런 水力地點도 있다。이것도 電力不足을 완화하기 위해서 可能한限 빠른 時日내로 小資金을 가지고 發電所를 建設하지 않으면 안될 우리나라 立場인 것이다。

☆ 要컨대 ☆ 나날이 늘어가는 失業者의 數가 人口增加에 對應해서 食糧을 自給自足할수 없는 狹少한 農土와 增加되는 電力의 需要와 用水의 需要等 韓國의 現實情은 새롭고 廣汎한 水資源開發의 必要性을 强力히 要求하고 있다。

이 開發計劃은 愼重하고도 綜合的인 見地에서 相互 調整된、計劃이어야 하며 한편 이計劃을 成功的으로 完遂하기 위해서는 한 現政府機構體制가 완강히 밀고 나가야할 事業이라 보지 않을수 없다。

이에 수반하여 水資源開發事業에 人的資源을 利用함으로써 고용의 증대를 도모하고 경제발전의 근본적인 주요요소의 하나인「돈」이 국가번영을 확립하는데 활용하도록 하여야 될줄로 믿는다。韓國은 젊은이의 나라다。心身이 健壯한 靑年에게 社會에 대한 目的意識과 自覺意識을 갖게 하는 한方도는 곧 그들에게 직업을 주는 것일것이다。직업이 없으면 청년은 바람에 날리는 티끌에 불과하다。헌신적인 일꾼을 가진 나라야말로 정말强한國家인것이다。(法學科)

## 새로운 視點

# 根本問題와 外面한 우리

## 덫에 걸린 世代가 意味하는 것

### 敗北속에서 눈을 돌려야

우리는 확실히 고민과 몸부림속에서 살고 있다。잃어버린 인간애(人間愛)의 회복을 위한 갈등이 그렇고、질서에의 모색이 또한 그러하다。특히 문명서를 확립하려고 하는여러 양상이 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기성질서에 대하여 대담(大膽)하게 도전을 시도하고 있는 「문학예술」의 오늘은 이러한 몸부림으로 나타나고 있는것이다。신・구세대를 흔히 세대간의 모랄상의 차질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었다。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더 절박한 것이 있는 것 같다。이것이 전쟁의 패배(敗北)라고 하는 전쟁의 피비린내가 그 가실 수 있겠다。휴머니즘의 전쟁은 사실 전쟁에의 패배의 기록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그리하여 말았다。더 어둡고、더욱 비참한「시궁창」과 장벽 속에 살아야 했던 이다。〈덫〉에 걸린 세대 바로 우리의 오늘이었던 것이다。〈덫에 걸린 세대〉란 말은 현대의 독일 청년 작가들을 가리키는 말이다。그들의 존재는 모두 인간의 목적이 와 그 의의 및

을 위해 그러나 불행히도 근본적 문제들과 이러한 외면하고 살았던

우리의 처지는 거의 숙명적인 것이 있다。일한 조국(祖國)에 놓여 양단된 서로 몸부림치면서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그리하여 내부 속에는 수한 반문만이 일고 있는 것이다。인간존재(存在意義)에 관한 모색은 의미가 있어 왔다。작가와 무수한 철학자(作家)들이 해명 이 고민했었다。

던 것이다。생각하면 우리에겐「앵그리 영맨」도 「비이트 다운 비이트」도 혹은「태양족」도 갖지 못했다。우리는 그 대로「패배의 세대」였다。패배감은 영원한 멸망일 뿐이다。길도 아무것도 이 속에서 제 시될 수가 없는 것이다。눈을 돌려 우리의 내부 속으로 겨냥을 해야 겠다。사실 우리의 전통은 패배의 역사뿐이었다。

사상적 패배자의 입장에서 있었던 것이다。패배자는 언제나 남의 종속물이 거나、정신적 식민지(植民地)를 의미 한다。이를 투시(透視)하는 눈조차 없었다。현실의 파악처럼 바른 것은 새로운 의욕 중요한 것은 없다。

그것은 기초작업이기 때문이다。현실을 뛰어넘어 인간의 근본적 문제와 맞선다고 하는 것은 바로 현실파악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과연 조건〈?〉이 주어졌던 것이다。그러면 이런 우리에겐〈패배〉의 말인가。우리들의 반문은 바로 이 새로운 시점(視點)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말이다。

宋仁榮 (哲學科)

## 스크린

# 斬新한 뮤직칼 텃취

### ≪九月이 되면≫

「九月이 되면」은 美國의 大富豪 (록・허드슨 扮)의 別莊에서 일어난 라브・코메디。九月이 되면 그의 愛人「리사」와 別莊에서 여름을 보내기 위해 「탈붓트」와「리사」는 別莊管理人「모리스」에게 두달 일찍 七月에 맞이 한다。

그러나「모리스」는 別莊에 女學生들의 房을 주어있었기 때문에 당황한다。後에 다시「토니」를 리더로 한 美國青年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탈붓트와 대 통하여 大學生 의 꿈 라 사 단 한 이는 「탈붓트」가 美國人과 結婚하려는 決心을 하고 사리 기회 라 우 을 그 와 그 트 가 나 포 떠나게 된다는 消息을 들고 汽車로 떠나 리 된다。

密月의 하룻밤을 따라가는 기서 즐긴다。「지나・롤로부리지다」、「록・허드손」、「산드라・디」、「보비・다린」이 젊은 春男女의 한쌍이 참신한 情事가 對決하는 멜로드라마에 싸여 다。

한여름 이태리 해안의 빌라에서 호젓한 현대 사랑의 嫉妬와 愛慾에 휩싸여 방황하는 武器 없이 싸여 「避暑地에서 생긴 일」、「라・산드라」、「로・지나・디」의 부리 「悲流」「보비・다린」이 한결 男便 好演。

歌手「보비・다린」이 直接 作曲하여 불렀다「九月이 되면」은 한창 流行하는 主題歌인데 各地에서 流行하고 있다고 한다。監督엔「로버트・멀리간」。파나비죤 總天然色。아카데미에서 上映中。【碩】

## 메아리

### 姓名三字를 盜用

○…作家가 筆名을 가지고 있는것은 常識처럼 되어있다。그렇다고 해서 모든 作家가 本名을 버리고 筆名만 쓰고 있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獨特한 小說技法과 간결한 文體로 人氣를 모았던 美國의 作家「O・헨리」의 境遇에 있어서는 그의 本名을 아는 사람은 적은 便이다。「O・헨리」는 그의 筆名이고 本名은「윌리엄・시드니・포터」이다。筆名을 쓰게되는 動機나 目的은 作家 個人에 따라 各各 다르겠지만「포터」의 境遇에는 銀行員으로 公金을 消費하여 감옥생활을 하고 있을 때 三年間의 小說을 썼고「O・헨리」라는 筆名을 썼다고 한다。그리하여 二七〇餘篇에 達하는 그의 作品과 함께「O・헨리」라는 이름을 남겨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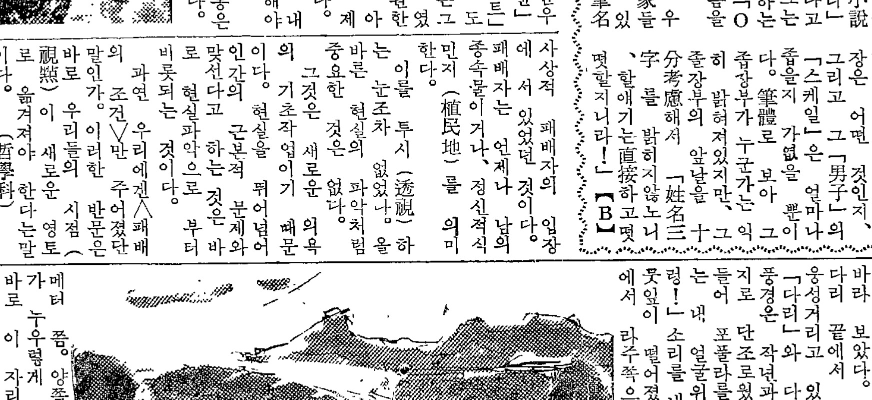
○…이 筆名은 作家들 뿐 아니라 詩人・作家들이 많이 쓰고 있으나 또 筆名을 쓰고 그리고 다。

筆名을 代身에「略字」를 쓰는 例도 많다。「메아리」의「B」는【Blue】의 略字라면 이런 것이다。略字를 구태여 부치는 것은 그 글에 對한 責任問題와 關係가 있다。그런데 지난 週에는 姓名盜用이 略字도 아니고 筆名도 아니고 버젓한 字로 그대로 原稿에 明記하여 新聞에 發表되도록 한「妖物」이 있었다。作者는 ××科學生 辛良美孃이 아니라고 辛孃自身이 解明을 했다。이름까지 빌려 創作했다면 좋았을 텐데 學生、創作으로 成功이나 해 보려는 女學生의 姓名을 盜用하여 作品을 發表한 그「男子」의 「스케일」은 어떤「男子」인지 좁을는지、가엾을 뿐이다。筆體로 보아 누군가는 밝혀져있지만、좁장부의 앞날을 分考慮해서「姓名三十字를 밝히지 않노니、할애기는 直接하도록 명할지니라!」【B】

## ≪꽁트≫

# 다리위에서

李吉技 作
姜鹿史 畵



라주읍(羅州邑)에서 기차를 내린 나는 신작로를 따라 가벼운 기분으로 걷고 있었다。신작로가 초가을 바람 포플라가 가득히 늘어선 에 나뭇잎을 떨구는 호젓함이 좋았다。

라주읍을 조금지나서 광주쪽으로 십여분쯤 걷노라면 길이 삼백메터의 긴「콩크리트」다리가 놓여 있다。그 긴 다리를 건느면 북쪽으로 비스듬히 누워있는 뚝길위에 엷소들의 울음소리가 한결 스산한 가을의 오후다。

나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내앞에 질펀하게 깔린「콩크리트」다리를 바라 보았다。저 쪽 다리 끝에서 몇사람이 웅성거리고 있을 뿐、「다리」와 다리주위의 풍경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단조로웠다。눈을 들어 포플라를 쳐다보는 내 얼굴위로「댕그링!」소리를 내는듯 나뭇잎이 떨어졌다。다리에서 라주쪽으로 오십메터쯤。양쪽으로 벼가 누우렇게 익어가는 바로 이자리였다。작년、바로 오늘。준아와 내가 뚝길을 걸어서 배밭에를 다녀온 길이었다。둘이는 말없이 다리위에 서서 있었다。준아와 나는 반대방향으로 빼쓰를 타야만 했다。서로 먼저 가라고 우기면서 벌써 몇대째인가 빼쓰가 지나쳐 갔다。가을의 선선한 락조를 받아 준아의 얼굴은 그레 상기되어 있었다。『먼저 가요。난 보구 천천히 걷다가 타고갈테니까…』『싫어요、내가 나중 갈래요。』 이런 싱갱이를 몇번인가 되풀이하고 나서 둘이는 라주읍으로 들어 가기로 했다。빼쓰가 어느쪽이든 먼저 오면 두말없이 타고 가기로 약정을 맺은 것이었다。다리에서 오십미터쯤 걸어갔을때였다。나는 엉겁결에 손을 들었다。준아가 번쩍 가야할 빼쓰가 온것이었다。준아도 엉겁결에 빼쓰를 집어 탓다。그리고는 뿌얀 먼지를 일으키며 빼쓰는 떠나버렸다。

허전했다。나는 그자리에 그대로 서서 빼쓰 가 가버린 단려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초가을 바람에 포플라 잎이 하나 둘 떨어지고 있었다。꼭 한시간이 지나서、나는 터벅터벅 라주쪽으로 걸음을 옮겨 딛기 시작했다。오분쯤 걷다가 빼쓰에 올랐다。곧 라주읍。빼쓰는 읍정차장에서 십분을 머물르게되어있었다。비좁은 빼쓰안、내가 자리를 잡으려고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였다。누군가가 나의 등을 정답게 한번 두들겼다。무심코 뒤돌아다 본 나는 하마트면 소리라도 지를뻔했다。벌겋게 상기된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준아가 부끄러운듯 웃고 있었다。좋았다。그저 기뻤을 뿐이었다。어찌면 구박으로 미끄러져 영원한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고 있는것만 같은 느낌이였다。가다가 다시 돌아온것이였다。

「야 임마!」 사내의 볼멘 소리와

차가 급정거하는 부레키 소리에 나는 정신을 번쩍 차렸다。빼쓰가 서있는 바로 곁에 내가 서 있었다。나는 급정거한 것이었다。게면쩍어서 으스로 발걸음을 옮겼다。다리쪽으로 흘러가는 물에 다리위엔 그림자가 흔들리고 그림자 조용히 밑의 물속엔 작년에 그림자도 담겨 있었다。내 그림 앉았던 준아의 그림자가 물이 흔들리고 있을것만 같았다。「비단에 물이 흔들려 얼룩이 지는지 모르겠는걸。」「글세에…」 물으면 왜 비단에 물이 얼룩이 지고 그 없어 지는지 모르고 있었다。그래서 다시 청승맞은 자세로 다리 위에 서있는 나는 물에 떨어진 돌하나를 물끄러미 내려다 보고 있었다。문이 잠잠해지니 다시 나와 하늘과 구름을 보았다。「……그런데……비단의 얼룩은…」 나는 고개를 들었다。래 다리 저쪽에서 지는듯한 혼란한 여인의 짖음과 사내의 냉랭한 고함소리가 끊이지 들려왔다。

다리 위에서 부부싸움이 벌어진 것이었다。너댓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부부싸움을 구경하고 있었다。나도 슬렁슬렁 가까이 가서 구경꾼 틈에 끼어들었다。사내는 여인의 손가락에 낀 금반지며 시계를 빼고「헨드・빽」을 여인에게서 빼앗아 들었다。사내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중이었다。「이 날도둑놈아!」「이 년아 날도둑놈이라니!」 이런 말을 한번도 못 해 본 여인은 하두 악이 차서 그런지 빼앗긴 후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었다。

사주지 않았음 네가 어떻게 이 옷을 입었겠냐? 응? 이년아 내가 그 늘이 강동팔 … 시퍼런 것이 지 순순히 못내놔!」 가는 팔자가 기구해 ……말이 이렇게 살림을 하구 있는데 자식들까지 내버리고 달아난다구 ……」 「이 년이 무슨 자식이야! 이 년아 널 도둑놈이야! 날도 사내의 억센 주먹이 여인의 머리통을 후려 쳤다。여인은 그대로 까무러치고 말았다。 구경꾼들이 하나 둘 흩어지기 시작했다。나는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달아나는 여인이 …… 이라는데야……。

「돈…」「빽…」을 내놓지 않아 다리 위에 끝까지 …… 빙 둘러선 구경꾼들을 뿌리치며 …… 사내는 여인을 끌고 …… 걸어갔다。

나는 멍뚝 떨어져 나는 정신을 차리고 …… 그 여인이 경찰서로 다리를 지르며 허둥지둥 라주읍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나는 고개를 돌려 뚝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다。

〈一九六二・九・一七〉 (英文科)


# 世界文藝講座

企劃編輯・現代文學社
發行・語文閣
서울特別市鍾路區孝悌洞130
⑤2920・2921・5993
振替口座 서울 2347

눈으로 듣는 文學의 名講義!

第四卷 (第三回配冊)

# 創作實技論

重要內容

第1部 文章의 理論과 實際
言語와 文學……李熙昇 文章總論…………朴木月
文 體…………鄭漢模 文章實技…………金潤成
文章修辭의 方法・金相一 詩文章의 特性…朴斗鎭
小說文章의 特性……………………………吳永壽
隨筆・評論文章의 特性……………………趙演鉉

第2部 創作의 理論과 實際
詩作法…………徐廷柱 隨筆作法…………崔台鎬
小說作法……………………………崔仁旭・朴榮濬
評論作法…………鄭泰鎔 時調作法…………李泰極
戲曲作法…………車凡錫 童謠作法…………尹石重
童話作法…………林仁洙 探偵小說作法……方仁根
歷史小說作法……………………………朴鍾和・朴容九
씨나리오作法……河有祥 日記文作法………李相魯
實用文作法………方基煥 書翰文作法………方基煥
論說文作法………金宇鍾 記事文作法………李炯基

第3部 創作修業經驗記
廉想涉, 朴花城, 崔貞熙, 柳致環, 金東里, 孫素熙 其他 二十餘 文學人의 修業經驗記 收錄

케스入豪華本 값 200원

既刊本
第一卷 文學概論 값實 一八〇원 (盡)
第二卷 文藝思潮史 값實 二〇〇원 (盡)



# 演劇아카데미學生募集

▲演技科(二年課程、若干名)
目的…舞臺는 勿論 映畫、放送、TV를 爲한 俳優養成
應募資格…演技者의 素質에 重點을두고 學歷은 制限하지 않음
試驗科目…演技、國語作文、一般常識
▲研究科(二年課程、若干名)
目的…劇作及劇文學、演出、舞臺美術等 諸分野의 專門家養成
應募資格…四年制 大學卒業 또는 卒業豫定者、그와同等한 學歷이 있는 男女、在學生도可함
試驗科目…專攻科目(劇作及劇文學或은 舞臺美術中「科目」) 國語 및 外國語
▲試驗期日 第一次 九月二七日
第二次十月一日
▲願書磨勘 九月二五日 (願書代五〇원受驗料一五〇원)
在學生도歡迎함
서울特別市中區藝場洞八
韓國演劇研究所
電話③四七六三・三四一〇番
드라마센타



高等考試委員 大教授 李文永 著
# 行政學
菊判 468面 값320원
〈本書의 特徵〉
① 本書는 政府에 있어서의 行政現象의 硏究를 主題로 하고 있다。
② 行政制度의 紹介보다는 原理의 紹介에 置重하고 있다。 抽象的인 理論만이 아니라 되도록 行政實務의 技術에 대한 理解를 基礎하여 展開했다。
③「行政過程의 普遍性」에 執着하고 있다。

出版 一潮閣
圖書總販 一文社
電話 ⑧5859番

國語 國文學徒의 入門書!
서울大師大教授 文學博士 金亨奎 著
# 改訂 國語學槪論
菊判 272面 값200원
〈主要目次〉
第一章 總論(國語의 槪念) 第五章 文字論(訓民正音以前의 文字)
第二章 音韻論(現代國語의 音韻體系) 第六章 方言論(標準語와 方言)
第三章 語彙論(單語・語意) 第七章 系統論(우리말의 系統)
第四章 文法論(文章・品詞論) 第八章 國語敎育・國語學과 國文學

梨大師大副教授 康宇哲 著
# 社會生活科學習指導
菊判 472面 값300원
〈主要目次〉
第一編 社會生活科의 性質 第四編 學習資料와 器具施設
第二編 學習經驗의 選定과 組織 第五編 學習形態와 指導技術
第三編 單元學習 第六編 學習評價와 測定